



Green
Ewha!

EWHA SEATTLE 2019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지회연합회
Ewha Womans University United Alumnae Chapters of North America

안정적인 재정을 위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도나 안내서는 필요없습니다.



삶의 최선을 다하는
플랜에 초점을
맞추세요.

The offering documents (policies, contracts, etc.) for all New York Life and its subsidiaries products are available only in English. In the event of a dispute, the provisions in the policies and contracts will prevail. 뉴욕라이프 및 그 자회사들이 제공하는 모든 증권 계약서는 영문약관으로만 취급이 가능합니다. 논쟁이 발생할 경우는 증권과 계약서의 각 조항이 우선합니다.

SMRU 1791699 exp. 12/31/19
© 2019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 51 Madison Avenue, NYC, NY

Insure. Prepare. Retire.

Be good at life.



2019 SEATTLE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북미주지회연합회)를 축하합니다.



Moonsoon P. Lee / 박문순
917-886-9831
New York, NY
1962 - 1966 / 사학과



Soon Hwan Hong / 홍순환
213-700-8266
Los Angeles, CA
1970 - 1974 / 비서학과



Hae Hyun Moon / 이해현
253-205-7561
Seattle, WA
1970 - 1974 / 도서관학과



Eunjoo Song / 고 송은주
Denver, CO
1971 - 1975 / 식품영양학과



Helen Yoo / 이해진
213-820-6551
Los Angeles, CA
1977 - 1981 / 건강교육학과



Keisun Na / 나계선
410-971-6767
Washington
1983 - 1987 / 철학과



Hyejin Cho / 조혜진
310-387-1334
Los Angeles, CA
1985 - 1989 / 장식미술학과



Kyungeun Kim / 김경은
972-589-1828
Dallas, TX
1989 - 1993 / 행정학과



Sunjin Kim / 김선진
678-575-1137
Atlanta, GA
1990 - 1994 / 종교음악과



Myungjoo Lee / 이명주
734-604-7656
Okemos, MI
1991 - 1995 / 법학과

- 2019 EWHA Magazine -

Table of Content

4 인사말

김혜숙 이화여대 총장
남상택 총동창회 회장
Marc Mullinax 이화국제재단 이사장
박현주 북미주지회연합회 이사장
신경림 북미주지회연합회 회장

8 Go Green

10 2018 토론토 총회보고

년도별 연례총회 주최지

11 각 지회소식

Alaska | Atlanta | Baltimore
Boston | Cleveland | Denver
Hawaii | Houston | Michigan
New York | North California | Northern Texas
Ottawa | Philadelphia | Saint Louis
Seattle | Southern California
Toronto | Vancouver B.C. | Washington D.C.

18 2019 지회별 동창회 장학금 수여현황

19 2019 Seattle 총회참가신청서

참가신청 안내문
총회일정
Tour Click: 총회 전후 여행일정

23 광고 | 후원



김혜숙(영문 76)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이화여대 동창회 북미주지회연합회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제가 북미주지회연합회 여러 동창님들을 만나본 지도 벌써 3년째로 접어들습니다. 2017년, 2018년 북미주지회연합회 뉴욕 총회와 토론토 총회에 참석하였고 이제 2019년 시애틀 총회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번 토론토 총회에서 시애틀 동창여러분들이 열과 성을 다해 마련한 자료를 보면서 시애틀 총회가 성공리에 잘 치루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번 시애틀 총회의 주제가 “Go Green, Ewha!” 라고 하는데, 내심 놀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학생들 주도로 이루어지는 “이화 그린 영상제”의 주제가 ‘환경’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며 지속 가능하고, 실천 가능한 생각들을 나누자’는 취지는 지구의 이 쪽과 저 쪽에서 모두 의미있는 것이지만 이화의 학생들과 미주 지역 선배들이 같은 시기에 같은 생각을 했다는 것이 신기롭기도 합니다. 이심전심으로 마음이 닿았나 봅니다.

제가 지난 해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화 동창님들을 만날 기회들이 많았습니다. 이화를 후원하는 뜻을 가지신 분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진정 글로벌 이화를 느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북미주지회연합회가 더욱 활성화되어 선후배 간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면 좋겠습니다. 북미주지회연합회를 본받아 아시아 이화동창회연합이 구체화되었고 유럽지역 동창회연합도 작게나마 구성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동창회연합은 이번 9월에 북경에서 연합회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오랜 전통의 북미주지회연합회가 앞으로도 여러모로 모범적인 동창회 활동을 잘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명실공히 글로벌 이화 동창 연합회가 세계 어디에선가 열리게 될 날을 기대해봅니다.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으실 시애틀 동창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총회가 꿈많은 젊은 시절 이화동산에서의 추억을 공유하는 이화인들의 진정한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문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김 혜 숙 드림.

시애틀에서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가 개최됨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북미주지회연합회 이대동창 여러분!

북미주지회가 이화라는 공동체 안에서 활발한 활동을 통해 진선미의 이화정신을 실천하고 계시는 모습에 정말 자랑스럽고 깊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시애틀 지회에서 총회를 개최하게 되면서 신경림 회장님과 임원 그리고 함께하시는 동창여러분의 모교사랑과 헌신에 깊이 감사하며 한없이 기쁜 마음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 각지에서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이시는 동창여러분들의 이화사랑이 멀리 이곳 모교 동창회까지 느껴지며 벌써부터 6개월 후에 시애틀지회를 비롯하여 많은 동창들이 한마음으로 만나게 될 총회가 기다려집니다. 인생의 가장 푸르렀던 시간을 이화여대의 같은 공간에서 보냈다는 것에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는 북미주 동창들의 말씀에 이화동창으로서 크나큰 자부심을 갖게 되며 깊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2019년 총회의 주제로 설정한 "Go Green, Ewha" 는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는 이화동창이 환경문제와 더불어 나눔과 봉사, 섬김의 이화정신을 지구촌 곳곳에서 실천하고 있다는 표현이기에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총회를 통해 더욱 굳건히 결속력이 다져지고 회원들의 유대관계가 깊어지면 더불어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화는 그동안 23만명의 동창들이 133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여성교육기관으로서 당당히 자리매김하였고, 이제는 21세기 최고의 여성교육기관으로서 시대적인 소망을 담아 더욱 더 비상할 수 있도록 선후배 동창여러분의 끝없는 모교사랑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18대 동창회가 3월에 첫 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북미주지회연합회를 비롯하여 큰 사랑을 베풀고 기도해주시는 모든 이화가족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화합과 도약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더욱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5월 31일 모교 최대행사인 창립기념일에 시애틀을 비롯하여 해외동창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하시어 반가운 만남의 장이 펼쳐지기를 고대하겠습니다. 10월에 개최되는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임원들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시애틀에서 반갑게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남상택 드림



남상택(물리 74)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Marc Mullinax, President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Ewha Womans University**



Our Green Legacy Awaits Us!

We are made wise not by the recollection of our past, but by the responsibility for our future. - George Bernard Shaw

Welcome to Seattle! I hope that your time here will be one of greeting old friends and making new ones. I hope – and I personally ask – that you will cross the generations and make friendships with those who are not your generation. Younger people, meet older grads. Older folks, please reach out to the newer grads. Why?

Let me get right to the point. I am in my Sixties. My generation has not been very kind to our natural world. The reports since the 1990s until a few months ago are dire. It is easy to get numbed by the numbers:

- 12 more years and it's crisis point
- 1.5 degree temperature rises in the oceans
- Decreasing land mass due to melting glaciers
- Increasing severity of weather extremes

We can no longer do "business as usual." To cure our global warming illness is going to take the best minds and most generous of hearts to envision, work towards, and to solve. Here in the Pacific Northwest are some of the top climate scientists, public-utilities planners, and public-health researchers in the country. They've built up a body of knowledge larger than we've ever had before showing us the impacts—and adaptations we can use in response to those impacts—of human activity today.

Not just this area, but all the world will become more stressed. Increased number of extreme weather events will test and even collapse our life systems. (East Coasters: Can you say "Hurricane Sandy"?) Public health systems, economic processes and our most sacred social contracts may be re-negotiated. Hard choices will be the "new normal."

Why so dire, Marc? So I can remind us that "We are Ewha!" We know how to partner, how to approach the intolerable, and how to solve what was once believed impossible. While a few people are directly culpable for global warming, all of us are responsible. This is when Ewha shines ... Ewhaians just roll up their sleeves and get things done.

As you meet old friends and befriend new ones, keep the very environment that makes all this possible in mind and heart. Let's do this.

Marc Mullinax, President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Ewha Womans University

북미주지회연합회 이화 동창 여러분께,

긴 시간 동안 2018년 북미주지회연합회 토론토 총회행사를 무사히 끝내고자하는 한 목표만을 위해 많은 토론토 동문들이 늦은 시간까지 준비를 해 주셨던 기억들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2019년 시애틀 총회를 위한 인사말을 쓸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북미주 각지에 흩어져 살다가 이화의 이름아래 한 자리에 모여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함께 웃으며 축배의 잔을 드는 3박4일의 시간은 참여하시는 모든 동문들께 기억속 저편에 깊숙이 묻어두었던 옛 추억들을 되새겨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속성해가는 뒷들의 장맛처럼 해마다 더욱 더 성숙해 가고 멋이 넘치는 북미주지회연합회가 되길 바라며 저희에게 또 다른 추억과 소중한 만남을 제공해주시기 위해 애쓰시는 시애틀 지회의 신경림 회장님 이하 모든 임원들과 동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겨울내 얼었던 땅위로 살포시 나오는 새싹이 아름다운 꽃들로 피어나듯이 수고로 애쓰시는 시애틀 동문들 한 분 한 분의 노력과 땀이 아름다운 총회로 거듭나면서 보람을 느끼시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멋진 해안의 절경과 함께 다양한 문화가 녹아있는 역동적인 도시 시애틀에서 시애틀 지회의 특성이 듬뿍 담긴 2019년 북미주지회연합회 행사에 많은 북미주 동문들과 함께 또 다시 오래 오래 기억될 추억들을 만들 수 있다는 설렘으로 10월의 행사를 기다려 봅니다. 총장님과 총동창회장님을 비롯한 모교 임원님들, 국제재단 이사님들, 그리고 모든 북미주 동문님들 한자리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동문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동창회 북미주지회연합회 이사장 박현주 드림



박현주(물리 89)

북미주지회연합회 이사장

존경하는 이화여대 북미주지회연합회 동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회장을 맡게 된 신경림입니다. 시애틀 지회는 'Go Green, Ewha!' 라는 주제로 2019년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를 개최하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진실과 선의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화인의 정신은, 알게 된 것을 선하게 실천하려는 의지와 그 과정을 통해 자아를 실현해가는 과정과 맞닿아 있다고 합니다. 2019년 시애틀 지회는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작은 실천을 통해 지속 가능한 아름다움을 회복하는데 마음을 보태고자하는 취지에서 올해 총회의 주제를 'Go Green, Ewha!' 로 정했습니다.

시애틀은 '에메랄드 시티' 라고 별칭될 만큼 산과 호수, 숲으로 가득한 'Green City' 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자연과 자유로운 도시 분위기로 인하여, 다수의 메체들이 시애틀을 전미에서 가장 살기 좋은 10개 도시에 수차례 선정하기도 하였습니다. 2019년 가을, 매일을 바쁘고 성실하게 살아 가시는 여러 동창님들과 모여 아름다운 시애틀의 자연 속에서 함께 힐링을 하고 삶의 신명을 채우며, 이화의 정신을 살려 'Go Green' 에 대한 지속 가능하고 실천 가능한 생각들을 나누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동창회 북미주지회연합회 회장 신경림 드림



신경림(장미 80)

북미주 지회연합회 회장



C H R I S J O R D A N

크리스 조던



Jordan inspects the plastic ingested by a chick in Albatross. Photograph: Chris Jordan



Most nests go to great lengths to feed their young ... a scene from Albatross. Photograph: Chris Jordan

“아름다운 눈을 통해 절망의 바다 건너러요”

-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는 작가 크리스 조던

태평양 한가운데 미드웨이섬에는 세상에서 가장 큰 날개를 가졌다고 알려진 새 ‘알바트로스’가 산다. 길이 2m가 넘는 날개로 푸른 바다 위 너른 하늘을 훨훨 날았다. 그런데 최근 이들의 날개가 꺾였다. 인간이 버린 플라스틱 때문이다. 모래사장 위에서 죽어간 알바트로스의 배에 플라스틱 조각들이 가득했다. 미국 사진작가 크리스 조던은 8년 동안 미드웨이섬을 오가며 알바트로스의 비극을 사진에 담았다. 그의 작품은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전 세계에 알렸다. 작가와의 일문일답.

- 미드웨이섬에 처음 간 계기는

“처음 간 건 2009년이였다. 평소 해양 플라스틱 오염에 관심이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죽은 알바트로스가 자주 발견된다는 미드웨이섬을 알게 됐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 섬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 자식을 이끌리듯 섬에 가게 됐고, 이후 8년 동안 작업했다.”

-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머릿속으로만 고민한다. 예술은 사람들이 마음 깊은 곳에 있던 감정까지 이끌어내고, 좀 더 본질적인 것에 대해 생각하도록 한다. 심각성을 느끼면 행동을 하게 된다. 변화도 만들어낼 수 있다. 예술 작품을 보고 슬픔이나 분노, 사랑을 느끼면 세상을 직접 변화시키고 싶다는 동기가 생길 것이다.”
[출처]조선일보 인터뷰 발췌

Go Green, 아이디어 콘테스트

- ❖ Go green 에세이: 생활속의 환경친화적 체험기 또는 생각
- ❖ 재활용/의상리폼: '아껴쓰고-나눠쓰고-바꿔쓰고-다시쓰는' 아이디어

방법 내용을 지침서체로 (무엇을, 왜, 어떻게) 작성하여 사진과 함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내용 인터넷이나 신문/책/잡지 등에서 읽은 실천하기 쉽고 좋은 아이디어도 출처를 기재하시고 응모하실수 있습니다

원고 마감 2019년 9월 15일

보내실 곳 ewhaseattle2019@gmail.com

“Plastic-free 교회, 플라스틱프리 삶, Plastic-free 살림”

-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공동대표 정성진 이광섭 이승리 김경은 김은혜)

페비닐로 인해 온 사회가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중국의 페비닐 쓰레기 수입 금지로 인해 시작된 일 같지만, 근본적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플라스틱 자체가 문제입니다. 플라스틱은 원유를 정제한 후 찌꺼기로 만든 제품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일상에서 사용하는 것 대부분이 플라스틱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 사람이 한 해 동안 쓰는 플라스틱이 98.2kg(일본 66.9kg, 영국 56.3kg)나 됩니다. 세계 1위입니다. 지난 6년 동안 1.5배나 늘었습니다. 비닐봉지 사용량만 보면 세계 2위인데, 420개를 씁니다(2015년 기준).

그래서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공동대표 정성진 이광섭 이승리 김경은 김은혜)에서는 풍성한 삶을 희망하는 분을 찾아 '플라스틱프리'한 교회, '플라스틱 프리'한 삶을 이어가고자 “플라스틱프리, Plastic-free 살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플라스틱은 '흠에서 와서 흠으로 돌아갈(창3:19) 생명의 순환과' 모두가 골고루 풍성한 삶을 사는 것(요10:10)'을 가로막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재 활용되는 것이니까 분리배출하면 되지' 하면서 계속 쓴다면, '필요' 이상의 것 즉 '먹음지도 하고 보암지한' 것을 탐하는 것으로 우리는 물론 지구를 더 심한 고통으로 내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껴야 할 지구, 하지만 우리로 인해 고통 받는 지구, 지구난화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노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공동된 문제이기 때문에 전세계가 힘을 합쳐 해결책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 플라스틱으로부터 자유로워져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살림의 삶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출처] Daum 블로그: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플라스틱 Fact

1. 분해까지 무려 500년 이상 소요
2. 재활용 비율 단 9%에 불과
3. 분해되는 과정의 미세플라스틱: 생태계교란과 먹거리 오염상태 심각



플라스틱, 달콤하고 살벌한 이름



- 플라스틱이 분해되는 시간 수 백년
- 긴 세월 동안 플라스틱은 아주 작은 조각으로 분해된다.
- 1분마다 쓰레기통의 1대 분의 플라스틱이 바다에 투기.
- 매년 5백만 ~ 1천3백만 톤의 플라스틱이 전세계 해양에 누출된다.
- 바다에 흘러간 미세 플라스틱은 새우, 홍합, 굴 등 해산 동식물의 먹이가 된다. 결국 우리도 미세플라스틱의 영향을 받은 해산물, 물고기를 식탁에서 만난다.
- 직경 1밀리미터 이하의 미세플라스틱인 마이크로 비드는 우리의 식탁 뿐만 아니라 차관, 스크럽제 등 생필품, 화장품에 알갱이 형태로 함유된다.
-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된 생물의 성장이 지연되거나 남성 호르몬의 수치가 급격히 떨어진다는 각종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은 아주 높다.

“하나님은 플라스틱을 좋아하실까?”

대답은 NOPE!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21절

- 사람과 더불어 땅이 모든 생명에게 생육함, 곧 풍성함을 하라하신 하나님
- 생물의 피조물이 한대 어둠의 세상을 살아갈 때 건강한 삶이 보장되기를 누릴 수 있습니다.
- 플라스틱은 내 몸과 창조세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 예수님의 죽음으로 부활한 생명의 씨앗을 플라스틱 코리올을 통해 회복해볼까요?

하나, 둘, 셋 실천하기

어떻게 하면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나갈 수 있을까?
하나, 둘, 셋 실천하기를 통해
한걸음씩 노력해 보자!

하나



“하나님, 플라스틱은 괜찮아요.
준비한 텀바구니에 담아갈게요.”
라고 말해요!

둘

꼭! 챙기세요!



커피, 차, 음료를 담은 텀바구니!
장보러 갈 때에는 텀바구니!

셋

함께하면 더 즐거운 플라스틱 프리

교회에서

솔로치치(제로웨이스트 교회) 캠페인

- 세계 환경의 날(12월 5일) A 환경 주일(1월 첫 주 혹은 둘째 주) A 세계 비닐봉투 안쓰는 날(7월 31일)과 연계하여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주일 혹은 주간 실시
- 한 달에 하루를 정해 '지구를 위해 많이 가져오는 날' 캠페인으로 진행
- '일회용품 없는 수면' 캠페인

직장 및 가정에서

솔로크리스천 캠페인

- 미세플라스틱 함유 화장품 피하기 *스파르본 여를 '피해'에서 '예방'으로
- 안전한고 무해한 화장품 사용
- 플라스틱 살림 용품 바꾸기
 - 1. 나무젓가락, 유리용기 등 플라스틱프리 제품 사용
- 직접 친환경 생활에 관심이 사용하기! 살림생활제도와 함께

2018 토론토 총회

2018 이화여대 북미주지회연합회 토론토 총회 '노던 라이트(Northern Light)'



이화여대 북미주지회연합회토론토 총회가 '노던 라이트(Northern Light)'라는 주제로 2018년 11월1일부터 4일까지 셰라톤 파크웨이 호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토론토에서 네 번째로 열린 총회에는 서울에서 온 김해숙 총장을 비롯해 이화국제재단의 이사들과 캐나다·미국 24개 도시에서 참석한 400여 명의 동문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나흘에 걸쳐 진행된 행사에서는 북미주지회 연합회 정기이사회를 시작으로 메이크업 교실, 춤바, 워크샵, 나이아가라 관광, 총장과의 만찬 등이 이어졌습니다. 행사 중 미술전시회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밀크백 만들기도 진행되었습니다. 총장님과의 만찬 디너에서 열린 밸런트 쇼에서는 올해도 어김없이 오랫동안 준비한 각 지회의 공연이 이어졌고, BTS 에 못지않은 ETS (Ewha Toronto Super-girls)의 특별공연으로 흥을 더했습니다. 토요일만찬은 토론토의 모든 동문과 사위들까지 오랫동안 준비한 특별공연으로 행사의 마지막 밤을 멋지게 장식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이대발전기금으로 2만불, 국제재단의 장학금으로 1만불을 보낼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국제재단으로 보낸 토론토 지회의 기금은 올해로 10만여 달러며, 2018년부터 토론토 지회 이름으로 장학금이 선발되고 있습니다.

년도별 연례총회 주최지회

YEAR	MEETING PLACE/주최지회	주최지회 회장
1970	Hotel New Yorker, NYC	
1971	Statler Hilton, NYC	
1972	Interchurch Center, NYC	
1973	York Club, NYC	
1974	York Club, NYC	
1975	York Club, NYC	
1976	Washington D.C. / 워싱턴디씨 지회	김정자(62 가정)
1977	York Club NYC / 대뉴욕 지회	이혜경(50 음악)
1978	Evanston, IL / 시카고 지회	전신애(65 영문)
1979	New York, NY / 대뉴욕 지회	장한희(53 기독교)
1980	Southfield, MI / 디트로이트 지회	김신형(49 가정)
1981	Los Angeles, CA / 남가주 지회	김성자(61 교육)
1982	Chicago, IL / 시카고 지회	최순자(66 의과)
1983	New York, NY / 대뉴욕 지회	조 연(61 약학)
1984	Philadelphia, PA / 필라델피아 지회	장창희(62 가정)
1985	Gaithersburg, MD / 워싱턴디씨 지회	한순정(58 미술)
1986	San Francisco, CA / 북가주 지회	이명희(62 교육)
1987	New York, NY / 대뉴욕 지회	이부자(60 사회)
1988	Toronto, CANADA / 토론토 지회	여정자(67 기독교)
1989	Evanston, IL / 시카고 지회	최경혜(60 법학)
1990	Los Angeles, CA / 남가주 지회	이희성(60 영문)
1991	San Francisco, CA / 북가주 지회	최충자(62 사회)
1992	Detroit, MI / 디트로이트 지회	김경숙(62 의과)
1993	Houston, TX / 휴스턴 지회	임예자(65 사학)
1994	New York, NY / 대뉴욕 지회	임병대(60 교심)

YEAR	MEETING PLACE/주최지회	주최지회 회장
1995	Vienna, VA / 워싱턴디씨 지회	오성미(64 영문)
1996	Boston, MA / 보스턴 지회	김경애(70 의학)
1997	Toronto, CANADA / 토론토 지회	정인영(68 물리)
1998	Atlanta, GA / 아틀란타 지회	김은숙(68 사학)
1999	Chicago, IL / 시카고 지회	윤미혜(64 사사)
2000	Anaheim, CA / 남가주 지회	김대훈(60 화학)
2001	Troy, MI / 디트로이트 지회	차승순(70 기약)
2002	Orlando, FL / 올랜도 지회	하명숙(66 체육)
2003	San Francisco, CA / 북가주 지회	강영자(64 기독교)
2004	Houston, TX / 휴스턴 지회	김성혜(72 식영)
2005	Cleveland, OH / 클리블랜드 지회	이선희(70 교심)
2006	Toronto, CANADA / 토론토 지회	강선희(67 교육)
2007	Port Lee, NJ / 대뉴욕 지회	최성남(70 약학)
2008	Seattle, WA / 시애틀 지회	이정형(63 약학)
2009	Denver, CO / 덴버 지회	이미옥(68 국문)
2010	Los Angeles, CA / 남가주 지회	오명애(74 장미)
2011	Boston, MA / 보스턴 지회	조수현(76 수학)
2012	Vancouver, CANADA / 밴쿠버 지회	강유순(67 약학)
2013	Washington D.C. / 워싱턴디씨 지회	오혜경(72 영문)
2014	San Francisco, CA / 북가주 지회	제갈숙경(79 기약)
2015	Atlanta, GA / 아틀란타 지회	김정희(79 약학)
2016	Houston, TX / 휴스턴 지회	김영옥(75 경영)
2017	New York, NY / 대뉴욕 지회	박영숙(86 경영)
2018	Toronto, CANADA / 토론토 지회	박현주(89 물리)

각 지회 소식

Alaska | 지회장 김명순(간호 62)

2월 9일 모임에 이어 4월 25일 이유경 동문(과학교육, 89) 집에서 대선배 운영하님들과 봄 정기모임을 가졌습니다. 부지런함으로 일과 가정 모두 균형있게느라 매우 바쁜중에도 집 오븐을 자주하며 손수 차린 저녁상을 대접하는 이유경동문은 사회복지사로 근무했고, 학구열로 헬스케어 미국 간호 보조사 자격증도 소유한 만능인입니다. 유머에 실린 친절함과 혼자 사는 동문의 생일까지 챙겨주는 섬세한 배려심은 물론이고, 사랑의 섬김정신을 일터와 이웃, 그리고 동문들에게 말없이 실천하는 자랑스런 이화의 딸입니다. 이유경 동문의 천정 어머니가 서울에서 다니러 오셔서 더욱 반가운 인사를 나눌 수 있어 좋았습니다. 5월 11일 토요일에는지역 교교 졸업생 한명에게 몇 안되는 동문들이 정성을 모아 장학금 1,000불을 수여하는 지역사회 섬김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Atlanta | 지회장 김영례(교육심리 79)

애틀랜타 지회는 매월 둘째 주 월례회로 모임니다. 월례회 만남에서 동창들 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며 많은 활동을 계획 실천 합니다. 애틀랜타 지회는 그동안 목표했던 장학금 10만불을 달성하여Helen Kim Society Leadership Member 이 되었습니다. 이 기금으로 2018년에 이화국제재단을 통해 본교에 만불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그 외에 2000불의 장학금도 예측하였고, 이화국제재단 백만불 장학기금 모금에 동참하여 3000불의 기금을 기부하였습니다. 또한 한인 2세 학생을 돕기 위한 장학재단인 미주한미장학회에 1000 달러의 기금을 전달하고 조지아 대학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 하였습니다.



2018년 9월 17일에 총장배 골프대회가 있었고10월 14일에는 애틀랜타 지회 이화동창합창단의 제 1회 합창발표회가 있었습니다.11월 2-4일 토론토에서 열린 2018년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는 지회동창 11명이 참석하였으며, 지회의 활동상황을 보고하고 탈렌트쇼에도 참가하여 연출상을 받았습니다. 12월 9일에 St. Marlo Golf Club 에서 연말파티를 열고 60여명의 동창들이 참가한 가운데 동창들 간의 친교를 다지며 이화인의 밤을 가졌습니다.

2019년 1월에는 총회를 열고 2018년도 회계, 서기, 감사 보고와 이사회 보고가 있었습니다. 3월 10일에는 애틀랜타 미술박물관을 함께 관람하는 문화행사를 가졌습니다.

Baltimore | 지회장 강성려(교육심리 67)

볼티모어지회는 2019년 4월 엘리콧시티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새 임원진을 구성하는 한편 지회장으로 강성려(교육심리학67) 동문을 선출하였습니다. 강 지회장은 앞으로 동문회가 선후배간 우애와 화합의 장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많은 동문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동문회 새 임원진으로 부회장 이진숙(가정 70), 총무 박은선(법학82), 회계 이영희(약대 63), 지명회(약대 71)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볼티모어 지회는 지난 2017년 이화국제재단으로부터 우수 기금모금 단체로 선정돼 명예훈장을 받았습니다. 문의: (410)707-4154



각 지회 소식



Boston | 지회장 김지영(교육 82)

2019년 보스턴 지회 회장단 및 임원들은 작년에 맡으신 분들이 연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고문으로 그간 동창회를 위해 늘 헌신해 오신 김홍혜 선배님이 추천되고, 결의되었습니다. 2019년도는 4월 6일 신년모임을 시작으로, 6월 건강세미나 및 Zentangle Art Class, 9월 이화가족 피크닉 및 운동회, 12월 송년모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화국제재단 기금을 통해서 모교 장학금으로 매년 4명의 재학생들에게 2500불씩, 또한 지역사회 2명의 학생들에게 500불씩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2019 년도에는 장학금을 두배로 올렸습니다. 에티오피아 선교사이신 장은혜동창 선교후원, 스페니쉬교회 여름 성경학교 지원,

로렌스지역 어린이를 위한 선교 담요만들기, 뉴잉글랜드 한국학교협의회, 한미예술협회, 필하모니아, 시민협회, 수학경시대회, 보스턴 노인회 등에 동창들께서 보내주신 이사비, 회비, 후원비와 함께 바자회를 통해 모아진 기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Cleveland | 지회장 문성애(생미 81)

45년의 역사를 가진 클리블랜드 지회는 야외와 좋은 식당, 혹은 동문들의 자택에서 매달 모임을 갖고 시간과 나이를 초월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끈끈한 이화인의 유대감을 나누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20일, 7월 25일, 8월 29 일, 9월 26일, 10월 24일에 '이화만남'을 가졌고 11월 17일 문성애(생미 81) 회장님께서 지회연례회의가 열렸고 성공리에 치뤄진 총회참석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9일에는 13명의 동문들이 모여서 한해를 보내며 새해를 기원했습니다.

2019년 1월 26일에는 새해 첫 이화만남이 노회용(약대82) 동문님께서 있었습니다. 2월 23일에 두번째 이화만남, 3월 27일에는 Cleveland Museum of Art의 Provenance에서 식사후 임 수아 Curator 께서 새로 로테이션 한 한국관에서 유익한 말씀을 해주셨으며 4월 모임엔 겨울 동안 읽은 책을 소개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9년 임원으로 회장/ 당연직이사 문성애(생미 81), 지회선출이사 김정진(의학 72), 노회용(약학 82), 지회 후원이사 이선희(교육심리 70), 임영미(교육 83) 동문께서 수고해 주십니다.



Denver | 지회장 백홍자(조소80)

2018년 이화 여대 동문 덴버지회 봄 피크닉입니다.

함께 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지요.

모이신 동문 평균 연령이 60-70세 입니다. 젊은 이화인의 수혈이 필요합니다.

Hawaii | 지회장 이해련(영문 84)

하와이 지회는 하와이대학 간호대학에서 한국어를 구사하는 학생을 선발하여 꾸준히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10일에는 하와이대학 장학재단에서 주최한 만찬에 지회장과 몇몇 동문들이 참석하여 장학금 수여자와의 만남을 가졌고 우리의 장학금 사업이 얼마나 많은 의미가 있는가를 새삼 느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겨울 정기 동창회 모임이 2월2일 이해련 지회장 자택에서 많은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지난 1년간 동창회 사업과 재정 보고가 있었고, 장학사업기금 마련을 위한 silent auction 도 열렸습니다. 또한 식사 후에는 기타 연주에 맞춰 노래 하면서 즐겁게 2019 기해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Houston | 지회장 구희경(사회생활 86)

2018년 12월에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겸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푸짐한 음식과 아름다운 음악회가 마련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2019년 1월에는 동문들과 함께 새해를 시작하며 선배님들로부터는 지혜가 담긴 말씀을, 후배님들로부터는 활기 찬 새해 계획을 듣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2월에는 연중 큰 행사인 이화휴스턴 주최 구정대잔치를 열었습니다. 3월에는 14 acres에 달하는 정원인 Bayou Bend Azalea Trail에 다녀왔습니다. Art History 를 공부한 동문께서 docent 로 수고해 주셔서 더욱 알찬 시간을 가졌습니다. 4월에는 로컬 학생들과 본교 후배들의 장학기금 조성 목적으로 Ewha Walk-Houston 행사를 가졌습니다. 5월에는 지난 25년간 해 왔듯 변함없이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지역사회 두 명의 학생에게 각 \$1,000씩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6월~8월 여름방학 기간동안에는 동문모임이 없으며 새학기가 시작되는 9월에 다시 만납니다. 10월에는 Seattle에서 열리는 2019년 미주총회에 여러 동문들이 참석하며, 11월에는 총회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Michigan | 지회장 신인옥(전산 85)

미시간 지회는 북미주에서 동창이 두 갈래로 나뉘는 사건 후, 소모임만을 가져왔었는데 올 초에 임원 및 이사님들의 의결을 거쳐 북미주 지회연합회 동창회에 같이 활동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미시간 지회는 현재 약 30~ 40 명의 동문들이 모이고 있고, 등록된 동문은 약 150명 정도입니다. 매년 동문자녀들 2명씩 선발하여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한인문화회관에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졸업 50 주년을 맞이 하는 선배님 들께 특별히 축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차승순 동문(기약70)이 미시간 한인사회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동안 차승순 동문께서는 한인회 및 한인 여성회, 미시간 상공회에서 활발한 활동과 함께, 한인문화회관 위안부 동상 건립등을 추진하면서 한인사회에 많은 기여를 해 오셨습니다.



각 지회 소식



New York | 지회장 강혜경(영문 83)

안무가 김영순(무용 74) 동문이 창단한 WHITE WAVE Young Soon Kim Dance Company가 2018년 6월 24-25일까지 제 3회 솔로듀오 댄스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여주영 동문(신문방송학 71)의 '뉴욕의 사계' 출판기념회가 2018년 9월 13일(목) 뉴욕대 공연회장에서 열렸으며, 허금행(국문 72) 동문의 산문집 "남편이 천사의 말을 한다"와 이수정(신문방송 90) 동문의 에세이집 "내 편, 돼줄래요?"가 출간되었습니다. 비대동문들의 녹미회 2018년 전시회

가 12월 7일부터 13일 까지 맨하탄 소재 Able Fine Art Gallery 에서 열렸으며, 민현주(서양화 87) 동문의 개인전이 2019년 3월 14일 -31일까지 Piermont Flywheel Gallery에서 열렸고, 원선영(서양화 65, 대학원 67) 동문이 2019년 4월 27일부터 5월6일까지 유화와 한지 작품들을 전시하는 초대전을 개최했습니다. 권현주(영문 69), 목정혜(영문 77) 동문이 공동으로 2019년 3월 21일 제 42회 뉴욕주 이종 언어 교육협회의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제 12회 세계한인의 날을 맞아 방숙자(정의 54: 글로벌 어린이 재단 설립자이자 명예이사장) 동문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김광희(화학 67) 뉴욕가정상담소 설립자가 유공자로 선정돼 2018년 11월1일 뉴욕 총영사관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Northern California | 지회장 광정연(독문 76)

2018년 12월 2일 Foster City에 위치한 Crown Plaza Hotel에서 78명의 동창들과 이화사위들도 참석한 가운데 정기모임 겸 연말파티를 가졌습니다. 소프라노 변유경(성악 96), 황경원(성악 05) 동창들의 독창을 시작으로 박은유(관현 13), 이아람(관현 94), 백일혜(피아노 81) 동창들의 피아노 트리오 연주, 그리고 김지연 동창(성악 91)의 지휘로 이화동창합창단의 합창도 있었습니다.

모여 정기모임을 갖고 신년계획을 세웠습니다. 2019년 2월2일에는 32명의 동창들과 정기모임을 함께 했습니다. 3월 9일에는 San Jose 에 위치한 한식당 '산장'에서 38명의 동창들과 함께 정기총회를 가졌습니다. 베이지에서 현대음악과 동양의 전통음악을 꾸준히 소개해 오고 있는 '우든퍼쉬앙상블'의 2019년 정기공연에 나효신(작곡82)동창의 새작품이 2월 9-10일 양일간 Stanford와 San Francisco 에서 연주 되었고, 또 이아람 동창(관현,94) 이 단장으로 있는 '소넷 앙상블'의 정기 연주회가 2월10일 Palo Alto 에서 있었습니다.

2019년 1월 5일에는 광정연 회장실에서 45명의 동창들이

Northern Texas | 지회장 윤경원(성악 85)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화 장학기금을 마련하고자 3월 25일(월)에 케플톤에 위치한 K.Jenny Boutique 에서 '빈티지 마켓'을 열었습니다. 작년에는 글로벌여성 지도자양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옛세이를 통해 선정된 초, 중, 고 한인 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고, 올해는 싱글맘으로 살아가는 한인 여성들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여자대학인 만큼 미국에 살고있는 한인여성들을 위해 장학금을 쓰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2020년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지회연합회(총35개의 지회로 구성) 총회가 달라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행사준비를



함께 하실 아직 동문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동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469-684-3883 부회장 신동진)

Ottawa | 지회장 박은경(장미 85)

2018년 5월 6일 2018정기총회에는 장소영 동문(사회사업 75) 덕에 모여 회계 결산과 지난 1년 활동을 돌아보았습니다. 6월 17일에는 심숙경 동문(약학, 86)의 오타와 방문을 계기로 모였고, 8월 25일에는 뜨거웠던 여름의 수고를 서로 위로하며 오타와 동쪽 식당 Cora 에서 브런치 모임을 가졌습니다. 박찬아 동문(유아교육 96)이 문화관광체육부 연수차 와서 오타와 동문회에 합류하게 되어 환영했습니다. 10월 12일에는 박은경 동문(장미 85) 덕에 정기모임을 가졌습니다. 12월 16일에는 박은경 동문덕에서 가족동반 모임으로 송년회를 가졌고 한접시씩 준비해온 음식을 풍성히 나누면서 즐거운 게임도 하고 송구영신 소감을 돌아가며 이야기하는 순서를 가졌습니다. 2019년 1월 12일에는 새 집으로 이사한 신희민 동문(물리학 대학원 99)의 집들이로 모였습니다. 안현옥 동문(독어독문 86)의 송별회 겸 새로 온 이연희 동문(컴퓨터공학, 04) 환영식도 겸했습니다. 3월 2일에는 조찬모임을 갖고 한은신 동문(수학 78)의 환갑을 축하하며 조찬모임을 가졌습니다.



Philadelphia | 지회장 박은옥(간호 75)

필라델피아 지회는 필라델피아, 델라웨어, 남부뉴저지 이 3개의 지역이 함께 어우러져 1968년부터 시작해서 50여년간 거르지 않고 1·7·8월을 제외하고 매월 정기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는 남광선(식품 76) 동문의 따님인 Christina 문안과전문의의 안질환과 백내장 안구건조증 에 대한 특별강의도 있었습니다.

2019년 3월1일부터 4일까지 오경자(약학 65)동문이 필라델피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플라워 쇼에 월요일마다 15명정도의 동문들이 참석하여 이화인의 유대를 돈독히 하고있습니다. 4월 김수형(의류 68), 조영아(동양 72)동문이 입회하여 환영하였습니다. 5월에는 델라웨어에 있는 퉁우드 가든투어를 하며 봄꽃의 향연을 즐길 예정입니다.



Saint Louis | 지회장 최혜영(생미 85)

세인트루이스 지회는 1997년에 발족하여 22년이 되었습니다. 동문들의 친목도모를 위해 분기별 정기 모임과 매월 진선미 모임을 가짐으로서 지회동문들의 경조사소식과 함께 모교의 소식들을 서로 공유하며, 소수의 동창들이 모이는 지회이지만, 세인트루이스지회 이름으로 모교에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국제재단 기금도 꾸준히 적립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지회활성화와 문화사역의 일환으로, 이화 동창을 중심으로 합창단을 창단하였습니다. 고문으로 김승희 박사님(최경선(영문 61)이사장님부군)을 단장으로 이신웅 장로님 (남진우 동문 부군), 지회자로 정선주 동문(성악 68), 그리고 반주에는 이명아 동문(피아노 90) 수고해 주십니다. 그리고 반주에는 이명아 동문(피아노 90)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또한 저희 세인트루이스 지회에 큰 경사가 있었



각 지회 소식

는데, 2016년에 스피드 어워드를 수상한 선계숙 동문(의대 72)이 133주년 모교 창립 기념 행사에서 빛나는 이화인 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지회원들은 모교와 부속병원, 부속기관들과 지회 동창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며, 지역 사회에도 이화의 빛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85), 회계 홍성희(약학 68), 유양수(식품영양 74), 박명호(정의 79), 서기 박연희(섬예 89), 편집 이해연(국문 02)동문이 수고해 주십니다. 시애틀 지회는 한국학의 관심을 높이고 연구활동을 지원하고자 매년 워싱턴 대학의 협조를 받아 한국학 전공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프반, 사진반, 등산반, 합창반, 이화사위중앙단이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019년 이화여대 총동창회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가 10월 24~27일까지 'Go Green, Ewha!'라는 주제로 시애틀 근교 Hiton Bellevue 호텔에서 개최됩니다. 시애틀지회는 총회준비 위원회를 구성하여 총회 준비위원장 박정혜(체육 71)동문을 필두로 각 활동부서를 나누어 총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9년 'University of Washington 'Distinguished Librarian'으로 워싱턴대학(UW) 한국학도서관 사서인 이효경 동문(도서관학, 92) 이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이효경동문은 지난 5년간 '북소리(Booksori)'를 통해 지역사회에 한국문학과 한국문화 관련 서적을 매달 소개 해 왔으며 한인커뮤니티와 한인 지식인들이 책을 통해서 교류하도록 귀한 징검다리 역할을 해 왔습니다. 시애틀 지회에서도 이효경 동문의 영예로운 수상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동문으로서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패가 전달되었고, 3명의 동문자녀들에게 남가주 동창회장학금이 수여되었습니다. 이로써 2018년 남가주동창회장 학금을 받은 학생은 총 9명이 되었습니다. 2019년 2월 '이화인을 위한 강좌'에선 삼일절 백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뜻에서종이부궁화꽃 만들기를 배웠습니다. 3월 이화인을 위한

Seattle | 지회장 신경림(장미 80)

2018년 12월 2일 송년회를 겸한 총회를 열어 일년동안의 사업보고를 마친후 2019년 시애틀지회장으로 신경림(장미 80) 동문을 선출했습니다. 신경림 시애틀지회장은 2019년 이화여대 총동창회 북미주지회연합회장을 겸임합니다.

2019년 1월 10일 이사회에서 새이사장으로 문혜현(도서관 74) 동문을 선출하고 새회장 및 임원단을 인준했습니다. 1월 16일 총회를 열어 신규임원의 이취임식과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2019년 새임원으로 부회장 현미경(국문 71), 이해령(약학

Southern California | 지회장 이보경(생미 80)

2018년 정기총회 및 송년회가 12월 9일 LA 다운타운에 있는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200여명 동문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보경(생미 80) 동창회장은 연임하게 되었고, 임기를 마치는 장계원(도서관 76) 이사장을 이어 박신화(기독교학 70) 부이사장이 신임 이사장으로 인준을 받았습니다.

2016년-2017년 동창회장에게



강좌로 최첨단의 정수시스템과 최고의 수질로 국제 대상을 받은 옐로우카운티 수도국 투어를 가졌습니다. 또한, 주회정 동문의 첫 박사 리사이블이 3월 7일 USC 대학 Newnan Recital Hall 에서 열렸습니다.

Toronto | 지회장 김혜연(법학 85)

2019년 3월21일 토론토의 한식당에서 열린 정기총회에는 40여명의 동문들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기도와 교가 제창에 이어 김혜연(법학 85) 신임회장이 따뜻한 인사로 행사의 문을 열었고, 김 회장은 지난해 11월 많은 지회원들이 하나가 되어 성공적으로 치러낸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를 되돌아 보며 지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행사를 위해 수고한 전임 박현주 회장에게는 이 날 지회원들의 감사의 마음이 담긴 상패가 전달됐습니다. 이날은 2019년을 이끌어 나갈 신임임원들이 공식적인 첫 인사를 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김혜연 회장과 문아연 부회장을 필두로 윤지숙 총무, 김미나 서기 등이 한해 동안 토론토지회를 이끌어 나갈 예정입니다. 임원진은 매월 핏볼회, 야유회, 골프대회, 연말파티 등 다채로운 행사들로 지회원들의 친목과 우정을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Vancouver | 지회장 강봉숙(비서 73)

밴쿠버 지회는 매년 5월 총회를 열어 새 임원진이 구성되어 일년동안 동문들의 모임과 행사를 주관합니다. 7월에는 가족동반 야유회, 9월에는 추석모임, 12월에는 부부동반 송년회 그리고 2월에는 구정모임을 가졌습니다. 특히 구정모임 때는 괄순을 맞으시는 동문들에게 축하 선물을 증정하며 100세 시대를 향한 건강을 잘 지키시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5월이 오면 다시 총회를 열고 새로운 임원들이 한해 동안 수고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매번 모임 때마다 30~40명 이상의 동문들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Washington DC | 지회장 조은희(경제 91)

2018년 12월 8일 워싱턴 DC 지회는 한 해를 뜻깊게 마감하는 의미로 해마다 가졌던 크리스마스 파티를 Westwood Country Club 에서 진행하였습니다. 110명이 넘는 선후배들께서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셨고 많은 새로운 동문들이오셔서 연말 파티는 더 신선하고 즐거운 자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2019년 1월 19일에는 신년을 여는 첫 행사로 이화 DC 지회 이사회 총회를 가졌습니다. 이사회 총회에서는 34명의 이사들과 임원들이 모여 지난 한 해 이사활동과 회계보고를 듣고 2019년 새 이사장 선출과 동창회 임원진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9년 새 이사장으로 김정자(가정 62) 동문이 선출되었으며 김정자 동문께서는 1975년 제1회 북미주 지회 연합회 총회를 워싱턴 DC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풍부한 경험과 리더십을 가지고 계신 바 워싱턴 DC 지회 이사회를 발전적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9 이화 지회별 장학금 수여현황

지난 1년간 (5/18/19 현재) 지회연합회가 모교와 지역 장학금 및 각종 기금으로 지원한 후원금 총액은 \$239,445.00 입니다. 지회연합회 동창들은 다양한 활동으로 친목을 도모하는 한편, 위와 같이 각 지회별, 그룹별, 개인별로 학교와 학생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의미있는 일에 크고 작은 액수로 참여해 주신 지회연합회 동창 모든 분들께 응원과 찬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1. 모교 이화여대에 지급된 지회별/동창 그룹별 기금 / 기타 목적별 기금현황

지회별 장학금	2018 지급액	2018 장학금 수혜자
남가주 지회	\$10,000.00	이유림 (교육 3) 외 3 명
남가주 지회 국제하기대학	4,500.00	Giwon Park 외 1 명
뉴욕 지회	20,000.00	최수연 (독일어 4) 외 7 명
동북오하이오(콜리볼랜드) 지회	10,000.00	조하영 (경영 4) 외 3 명
디트로이트 지회	10,000.00	김성현 (패션디자인 2) 외 2 명
보스턴 지회	10,000.00	김민지 (중국어 4) 외 3 명
북가주(샌프란시스코) 지회	10,000.00	김지애 (통계학 4) 외 3 명
시애틀 지회	2,500.00	안정민 (운동학 2)
워싱턴디씨 지회	10,000.00	심혜주 (통신학 3) 외 3 명
워싱턴디씨 국제하기대학	1,400.00	Andrew Joseph Lee, Juzel Lloyd
아틀란타 지회	10,000.00	윤희상 (사회학 4) 외 3 명
휴스턴 지회	10,000.00	김태희 (건축학 5) 외 3 명
모교 지급지회장학금 TOTAL	\$108,400.00	

그룹별 장학금/연구기금 이름	2018 지급액
의과대학 연구기금	\$20,000.00

목적별 이화 지원 기금	지급액
간호대학 건축기금	\$8,425.00
기숙사 건축기금	20,000.00
이화 연구역량강화기금	20,000.00
이화 Global Partnership Program	20,000.00
이화 Global Empowerment Program	1,800.00
이화제 2 의료원(마곡병원) 건축기금	20,000.00
이화 130 -Wave 기금	820.00
목적별 기금 TOTAL	\$91,045.00

2. 각 지역에서 지급되는 지회별 장학금 현황 (2018/19)

지회별 장학금	대상	지급액 (\$)	수혜자
남가주 지회	동문 자녀	3,000. (3 명)	Il Joon Kim, Erin Kim, Hee Jung Kim
뉴욕 지회	지역 교포 자녀 대학생	6,000. (2 명)	
	이대 출신 대학원생	4,000	
텍사스 지회	4 - 12 학년 여학생	2,000.	Kristin Kim 외 9 명
보스턴 지회	이대 출신 대학원생 & 지역 사회 출신	1,000. (2 명)	이진 & 김나연
시애틀 지회	U. Washington 한국어과 학생	1,000.	Latoya Jnbaptiste
아틀란타 지회	한미장학재단 남부지부를 통해 11 학년-대학원생	1,000.	YoungJu Cho
휴스턴 지회	Christian 한인 여대생	2,000. (2 명)	Haemin Ju, Connie J. Lee
지역별 Local 장학금 TOTAL		20,000.	

2019 SEATTLE 총회 참가 신청서

담당자: 박정혜 준비위원장 206-334-8764, m71namkung@gmail.com / 이해령 부회장 206-302-8547, sabee712@hotmail.com

소속 지회		이름	한글:	졸업	연도:
			영문:		학과:
연락처	Email:			전화:	
	주소:			City/State/Zip:	
동행자	이름:			명/수 (본인제외): 명	

행사 날짜	행사내역	참가비	인원수	합계
10/25 (금)	총회 참가 등록비 (8/31 이전 등록시 면제)	\$25		
	아침식사 (\$25 value/ \$15 시애틀지회 제공)	\$10		
	시애틀 시내관광: Pike Place Market, Space Needle, Chihuly Garden & Glass, Amazon Head-Quarters, Starbucks Reserve	\$110		
	Golf: Redmond Ridge Golf (redmondridgegolf.com)	\$110		
	총장님과의 만찬	\$100		
10/26 (토)	아침식사 (\$25 value/ \$15 시애틀지회 제공)	\$10		
	시애틀 근교 관광: Mt. Rainier, Paradise, Longmire Museum, Snoqualmie Waterfalls...	\$110		
	Golf: Washington National Golf (washingtonnationalgolf.com)	\$110		
	총회 대만찬	\$120		
10/27 (일)	아침식사 (\$25 value/ \$15 시애틀지회 제공)	\$10		
	총액			

안내문

<p>신청서 참가비</p> <p>신청마감 9/30</p>	<p>신청서는 북미주 지회 연합회 웹사이트 (www.ewhain-na.com) 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각지회장님께 받으셔서 기입한뒤 절취선 위의 부분과 함께 개인수표 또는 Money Order 를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Pay to the order of Ewha Alumnae in WA (반드시, 지회/이름/졸업연도/과 를 수표에 적어주십시오.)</p> <p>보내실 곳: 6001 167th Ave SE, Bellevue WA 98006 (Attn. to: Myoung Ho Kim) 지불 문의/ 박정혜: 206-334-8764 Email: ewhaseattle2019@gmail.com</p>
<p>호텔 예약마감 9/30</p>	<p>Hilton Bellevue: 300 112th Ave. SE, Bellevue, WA 98004, USA ***\$112/1 박 (1인 1실/ 2인 1실/ 4인 1실 동일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예약: 1-800-Hiltons (Group Code: UNIV) ▪ 온라인 예약: 북미주 지회 연합회 웹사이트 (www.ewhain-na.com) 에서 호텔예약 링크 를 누르시면 <p>Hilton-Ewha site: https://www.hilton.com/en/hi/groups/personalized/L/LION-HF-UNIV-20191024/index.jhtml?WT.mc_id=POG 로 연결 됩니다. (또는 인터넷 창에 위의 링크를 copy&paste 하셔도 되겠습니다.)</p> <p>Group Name: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Group Code: UNIV Check-in: 24-OCT-2019 Check-out: 27-OCT-2019</p> <p>***호텔예약시, 24-OCT-2019 보다 일찍 Check-in 또는 27-OCT-2019 보다 늦게 Check-out 하셔도 \$112/1 박 (1인 1실/ 2인 1실/ 4인 1실 동일가) 로 예약 가능하도록 Hilton 과 협약되었습니다.</p>
<p>10/27 아침식사</p>	<p>*** 다년간 총동창회에서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 마지막 날인 일요일 아침식사를 매년 제공해 왔습니다만, 올해부터 더이상 제공하지 않기로 총동창회에서 결정되어... 금/토 요일과 마찬가지로 아침식사는 \$10 (\$25 value/ \$15 시애틀지회 제공) 에 제공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p>
<p>여행/Golf</p>	<p>***여행/ Golf 비는 자연재해의 이유 외에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숙지하여 주십시오. 우천시를 대비해 모자와 우산 방수자켓을 준비해 주십시오. Golf 는 비가 와도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Power cart, Range ball, 점심, 간식, 물, 교통편이 제공 됩니다.</p> <p>***총회 전후로 Tour Click 여행사와 연계하여 4박 5일 캐네디안 록키완주/ 2박 3일 올림픽 굴림공원-빅토리아-밴쿠버 일정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안내문은 따로 첨부합니다. 예약문의는 Tour Click (425-747-9959/ seattle@tourclick.ca) 본인이 직접 예약하셔야 하며, 또는 시애틀 동창회 여행부장 이정형 (206-697-6337/ cgyngxhyu@gmail.com) 동문께 제반사항에 대하여 문의 하십시오.</p>
<p>교통 공항-호텔</p>	<p>**시애틀 지회에서 따로 교통편을 제공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콜택시 (253-350-3600/206-235-7549), 공항택시/ Uber/Lyft 를 미리 예약하시거나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Uber/Lyft 앱은 미리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십시오.)</p>

총회 일정

10/24 (목)	3:00 - 10:00 pm		호텔 체크인 및 총회 등록 시작
	8:00 - 10:00 pm		북미주 지회 연합회 정기 이사회
10/25 (금)	7:00 - 8:30 am		아침식사
	Tour 가시는 분	9:00 am 출발/로비	시애틀 시내관광: Pike Place Market, Space Needle, Chihuly Garden & Glass, Starbucks Reserve/ 본사...
		8:30 am 출발/로비 (9:30 am Tee time)	Golf: Redmond Ridge Golf (redmondridgegolf.com)
	Tour 안가시는 분	9:30 am - 10:30 pm	요가 세미나
		10:30 am - 12:00 pm	댄스 강습
		2:30 pm - 4:00 pm	건강 세미나
	4:30 pm - 5:30 pm		이화동창 합창단 연습
	5:30 pm - 6:00 pm		각 지회 탤런트 쇼 리허설
	6:30 pm - 10:00 pm		총장님과의 만찬, 각 지회 탤런트 쇼
	10/26 (토)	7:00 - 8:30 am	
8:00 am - 9:30 am		총회	
Tour 가시는 분		9:30 am 출발/로비	시애틀 근교 관광: Mt. Rainier, Paradise, Longmire Museum, Snoqualmie Waterfalls...
		9:30 am 출발/로비 (10:30 am Tee time)	Golf: Washington National Golf (washingtongolf.com)
Tour 안가시는 분		9:30 am - 10:30 pm	자유시간
		10:30 am - 12:00 pm	재활용품을 이용한 공작
		2:30 pm - 4:00 pm	Sing along
4:30 pm - 5:30 pm		이화동창 합창단 연습	
5:30 pm - 6:00 pm		리셉션	
6:30 pm - 10:00 pm		총회 대만찬	
10/27 (일)	7:00 am - 8:30 am		아침식사
	8:30 am - 9:30 am		예배
	9:30 am - 10:30 am		총장님과의 대화 & 작별인사

이화여대 총동창회 북미주지회 연합회 동창회원을 위한 **단독여행**

캐네디안 록키 완주 4박 5일

- DAY 1** ● 벨뷰 힐튼 호텔에서 집합 캐나다 국경으로 이동 호프루 이동 후 중식
캐나다의 유일한 사막지대 메릿을 경유 연어의 도시 셀몬암 도착 체크인 및 휴식
- DAY 2** ● 록키 4대 국립공원중 한 곳인 요호 국립공원 에메랄드 호수, 자연의 다리 관광
록키산맥의 에메랄드 호수 레이크 루이스 관광 쿠틀니 국립공원으로 이동 온천욕 무료 제공
- DAY 3** ● 캐나다 최초 국립공원인 밴프 국립공원으로 이동 서프라이즈 코너, 보우 폭포 관광
포함관광 - 밴프 곤돌라 탑승하여 자연경관 관람
- DAY 4** ● 메릿을 지나 호프에서 중식 후 밴쿠버 도착 간단한 쇼핑 및 휴식
- DAY 5** ● 밴쿠버 다운타운 관광
캐나다 플레이스, 스텐리 공원, 개스타운 등 시애틀 국경을 통과하여 시애틀로 이동 후 해산

일정 : 2019년 10월 27일 ~ 10월 31일

비용 : 10인 이상 \$650, 20인 이상 \$620, 30인 이상 \$560

포함 사항 : 전일정 식사, 차량, 숙박, 온천, 국립공원 입장료

불포함 사항 : 가이드/기사 팁(\$10/Day), 식사 팁(\$1/끼), 호텔팁

준비물 : 수영복 및 개인타올(온천, 호텔수영장), 일교차 대비 겉옷

올림픽 국립공원/ 빅토리아 밴쿠버 2박 3일

- DAY 1** ● 가이드 미팅 후 올림픽 국립공원으로 이동 곳곳에 아름다운 폭포, 늪지대, 천연온천 감상
슬덕 온천으로 이동 온천욕 무료 제공 포트 엔젤레스로 이동 후 호텔 체크인 및 휴식
- DAY 2** ● 페리 터미널로 이동 후 빅토리아로 출발 밴쿠버 섬의 상징이자 낭만적인 부차드 가든 투어
이너하버로 이동 후 주변 야경 투어
- DAY 3** ● 페리 터미널로 이동후 밴쿠버로 출발 밴쿠버 다운타운 투어
차이나타운, 캐나다 플레이스, 스텐리 공원 등 시애틀 국경을 통과하여 시애틀로 이동 후 해산

총회전 여행을 하기 위하여 미리오시는 분의 편의상 시택국제공항 근처에 위치한 호텔을 지정하였습니다.

* 아침식사와 무료 공항셔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 : Contry Inn & Suites

요금 : \$109+Tax / 방 상황이 좋지 않아 빠른 예약요청 바랍니다.

일정 : 2019년 10월 22일 ~ 10월 24일

비용 : \$450(6인 이상 출발, 참가인원이 많으면 경비 낮아짐)

포함 사항 : 전일정 식사, 차량, 숙박, 온천, 페리, 입장료

불포함 사항 : 가이드/기사 팁(\$10/Day), 식사 팁(\$1/끼), 호텔팁

준비물 : 수영복 및 개인타올(온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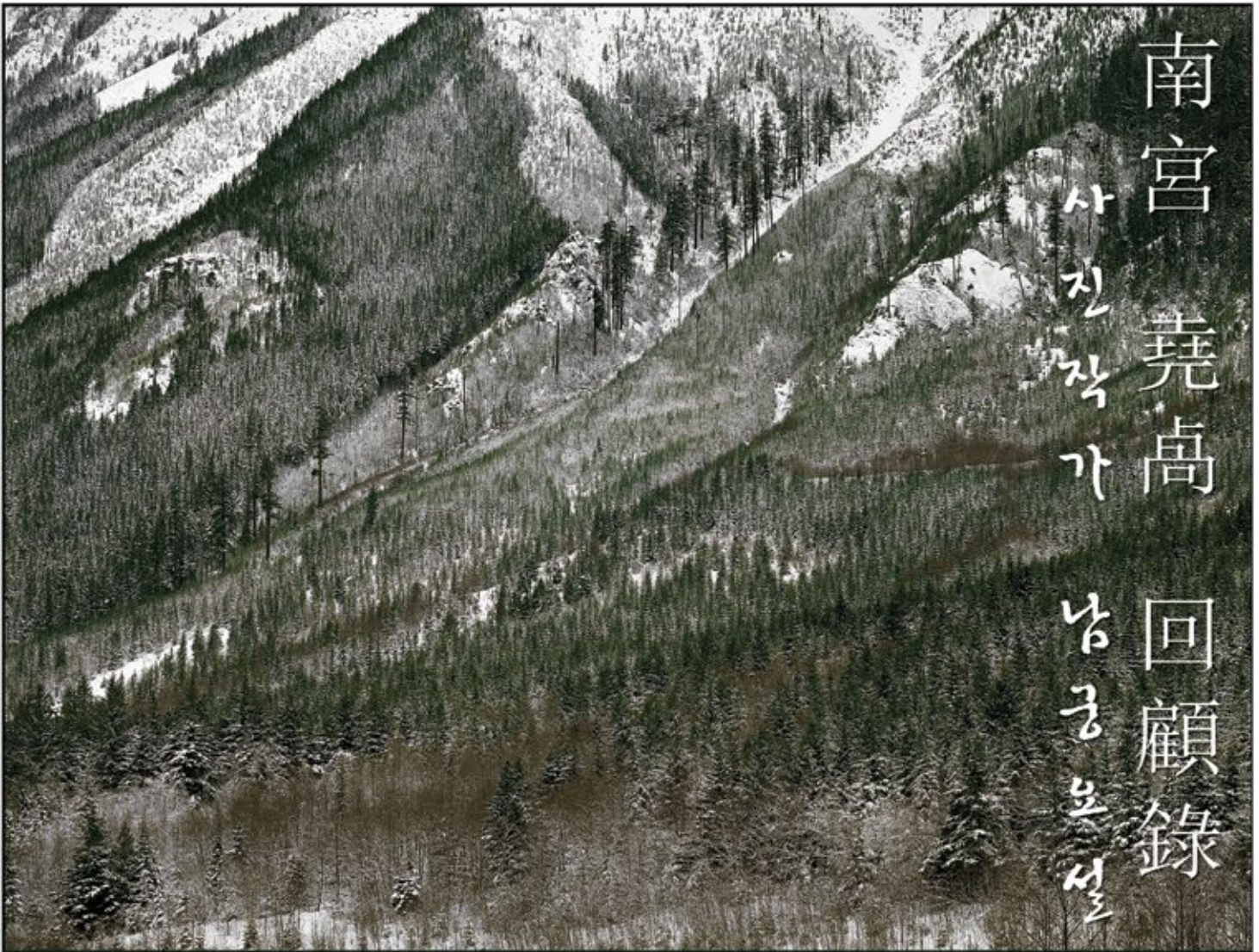
*상기 일정은 간략하게 안내된 일정이며 현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예약처에서 확인 바랍니다.

문의 및 예약

투어클릭 : T.425-747-9959 / seattle@tourclick.ca / 31515 Pete Von Reichbauer Way S. Ste #102 Federal Way

이화여대 총 동창회 지회연합회 시애틀 동창회 여행부 이정형 T.206-697-6337 / chungxhyu@gmail.com





南宮堯高 回顧錄

사진작가 남궁은설

A retrospective

Johsel Namkung Photography

website: <http://johselnamkung.net> | email: m71namkung@gmail.com | phone: (206)334-8764, Monica Namkung

JOO FAMILY CLINIC Love Care Cure Hope **JOO AESTHETICS** 주 패밀리 클리닉

소아진료

부인진료

피부미용 시술

성인진료

노인진료

비만 치료의 새로운 바람 - 지금 당장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Joo Aesthetics

- 보톡스
- 필러
- IV 치료 (링거 주사)
- PRP 시술 (자가혈 피부재생술)
- 비만 클리닉 (트루 스컬프팅 특수장비)
- 스킨케어 클리닉 (마이크로니들)
- 피부 클리닉 (점/사마귀/기미/잡티 제거)

원하는 부위만 골라서 빼는 다이어트의 혁명!
트루 스컬프팅 장비 도입 truSculpt-3D

안전하고 효과적인 저출력 레이저를 이용한 지방분해 시술로 체지방 감소, 부분 비만 개선, 피부탄력 증가

425-409-9247
www.JooFamilyClinic.com / E-mail: kk@joofamilyclinic.com
22618 Hwy 99, Suite 106 Edmonds, Wa 98026-8395 (부한 플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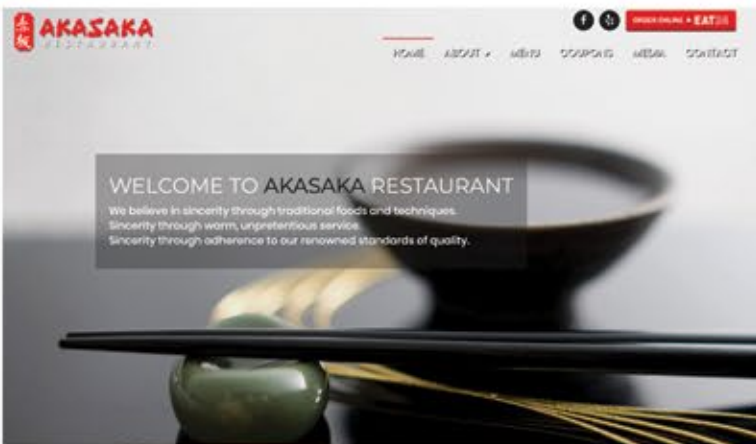
클리닉 시간
MON 9:00 am - 6:00 pm
TUE-FRI 8:00 am - 6:00 pm
SAT 8:00 am - 2:00 pm

Physician and Surgeon, fellow of American Academy of Family Physicians

김덕신 종합의료원

Doug S Kim, M.D.
Family Medicine
Urgent Care

Phone (253)941-7100 Sound Medical Center
Fax (253)941-1510 31830 Pacific Hwy. S. Suite D
Cell (253)350-3538 Federal Way, WA 98003



32703 Pacific Hwy. S. Federal Way, WA 98003
1-253-878-5103, Mon-Sat: 11 am -10 pm/Sun: 12:00 pm-10:00 pm

USDA PRIME BBQ



— THE —
PREVIEW GROUP

206.769.8949 DIRECT
206.362.0700 OFFICE
206.362.0701 FAX

mskweon@comcast.net

2150 N 107th St.
Suite 170
Seattle, WA 98133



MYUNG SOON KWEON
Broker
Since 1998



이화여대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동문님들

2019 시애틀총회에
초대합니다.

환영합니다!



조선용보험

메디케어 관련 보험 및
정부 절약 프로그램 안내

425. 951. 9210

sunnychoinsurance@gmail.com

메디케어 전문가

건강보험 / 생명보험 / 은퇴연금

워싱턴주 보험 라이선스 보유



**Park Chenaur
& Associates, Inc., P.S.**
Attorneys at Law
Personal Injury - 교통사고 전문

Gina Kim / 지나 김
Case Manager / 사무장

2505 S. 320th St. Ste. 100
Federal Way, WA 98003
Direct 206-498-6040
Tel 253-839-9440
email: gina@parkchenaur.com

www.parkchenaur.com

자동차 사고가 일어난경우

- 제일 먼저 911에 전화 하시고
- 현장 사진촬영 -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황 및 차량 파손
- 운전자의 정보 취득 - 이름, 전화번호, 차량보험 정보
- 증인의 정보 취득 - 이름, 전화번호, 연락처
- 그리고 박&쉬나 법률 사무실로 즉시 연락바랍니다.

사무장 / 지나 김 (206) 498-6040



UniBank, partner for hope and prosperity



멀리 가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유니뱅크가 여러분의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SAB 상업용지는 유니뱅크에서 ...
워싱턴주의 유일한 토착은행 유니뱅크

UniBank
희망과 번영을 향한 동반자 유니뱅크



Dr. Eugenia Lee

Specialist in Orthodontics: Adults, Teens & Children

Kenmore Dental
Clinic



Call and schedule a complimentary
consultation today!

425-486-5033

VISIT US
6503 NE 181st ST
Kenmore, WA 98028

CALL
Tel: 425-486-5033
Fax: 425-402-3788

www.leesorortho.com
©2023 by Eugenia Lee Orthodontics



Welcome to Seattle!

이화여대 북미주 지회연합회

2019 시애틀 총회를

축하합니다.

Angel 엔젤약국
PHARMACY

웨더럴웨이 H-Mart 내

31217 Pacific Hwy. S. Federal Way, WA 98003

Tel: 253-642-7850/ Fax: 253-642-7849

약사 윤현숙



이화여대 총동창회
북미주지회연합회

2019 시애틀 총회를
축하합니다!



1. 최고의 서비스 Best Service
한국어 전용 콜센터 서비스
2. 최저의 보험료 Best Price
여러 회사와의 비교로 인한 최저 보험료
3. 최고의 회사들 Best Companies
A급 이상 보험회사들로 견적비교

사업체 보험 | 자동차 & 주택보험 |
메디케어 | 생명보험 | 건강보험



www.seattlebesti.com

대표 변정



SEATTLE BEST INSURANCE INC
시애틀 베스트 종합보험

18623 HWY 99 #240 LYNNWOOD WA 98037

T. 425-741-3600

2019 이화여대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시애틀
총회에 오실 동문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시애틀에서 뵙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이혜령 (약학 85)



에드몬즈 **HIGHLAND PHARMACY**



일반 / 메디케어 / 메디케이드
각종의료보험 환영

문의전화: 425-673-8533

Fax: 425-673-5010

highlandpharm@hotmail.com



오전 9:30~오후 6:00
토요일 오전 9:30~오후 3:00

22618 Hwy 99 #109 Edmonds, WA 98026 (부인의렛출구)



CDS

성공 비즈니스의 지표

오랜 경험의 노하우 · QIR* 공식인증 · 전문인력
POS 서비스 - CDS로 통하다.

CDS는 지난 23년 동안 정직과 신용으로 서비스해 온 신용카드, ATM, POS 프로세싱 전문기업 입니다.

CDS POS Support Team 은 QIR Certified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OS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CDS로 문의를 주시면 조직화된 전문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CDS**

Tel. 1-800-371-5109 / www.cdsus.com / info@cdsus.com

1 QIR Certified POS 설치 및 관리 2 EMV 터미널 무상 렌탈 3 PCI전담 서비스 4 리스크/차지백 전담 서비스

© 2019 Creditcard Discount Services Inc. All rights reserved - CDS is a registered ISO of Elavon, Inc., Georgia, Fifth Third Bank, Cincinnati, OH



